

대만 ESG관광 트렌드 보고서

1. ESG의 등장배경

2004년 UN보고서 “Who Cares Wins“에서 ESG가 최초로 등장하였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기업이 ESG에 기반한 경영을 하면 장기적인 재무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서술하며 ESG를 기업의 경영지표로 삼아야한다고 언급하였는데, 이 보고서 출시 이후 ESG는 기업들의 필수 마케팅전략으로 점차 자리 잡게 되었다.

대만에서도 기업경영을 언급하면서 ESG의 개념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는데 크게 그 원인을 세 가지로 언급한다.

첫째, 기업의 리스크 보완책이다. 대만의 주요기업과 투자자들은 재무보고서가 기업의 경영현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발생한 식품안전 문제나 폐기물 관리 문제, 기업지배구조 문제들은 투자자들의 대량 손실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영관리 미흡이라는 부정적 평가를 받게 하였고, 이러한 리스크를 보완하기 위해 ESG강화라는 방안을 선택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신종리스크의 위협 속에서 기업경영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기후변화 문제는 각계각층이 주목하는 주요 관심사로서, 기업의 ESG위기관리시스템이 더욱 중요한 필수요소가 되었다.

셋째, 시장이 바뀌었다. UN과 글로벌 기업들은 앞 다퉈 ESG사업을 확장해 나갔고, 투자자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도 역시 상품이나 서비스들 구매하거나 해당 브랜드를 평가할 때 가격, 품질, 서비스 등의 조건 외에도 기업의 ESG관리 및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 등을 평가 잣대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2020년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실시한 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펜데믹 시기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지역 투자자들의 '지속가능한 투자'에 대한 선호도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향후 3년 이내에 투자금액의 5~15%정도를 '지속가능(永續)' 항목에 투자할 계획이 있다고 밝힌 응답자가 약 절반을 차지하며(43%), 8%의 응답자는 투자금액의 25%정도를 ESG분야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답하였다.

기업의 탄소배출문제나 ESG에 대한 사회적 책임들은 투자자의 수익에 고스란히 전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의사결정과정에서 기업의 ESG 실천 여부를 매우 중요시 여긴다. 이런 투자자들의 요구에 정면으로 대응해야하는 기업들 역시 '큰손 투자자들'과 경영권 확보를 위해 ESG실천을 회피할 수 없는 것이다.

2. 대만의 ESG관광현황

(1) ESG관광의 발전

- 2005년 : '지속가능(영속)' 개념의 등장, 행정원의 국토발전계획에서 '지속가능(영속)'이라는 개념 제시
- 2007년 : 대만관광발전 3개년 계획(2007-2009), 관광발전 비전에 '지속가능(영속)'의 개념 제시
- 2015년 : 관광대국행동방안(2015-2018), '지속가능한 관광(녹색관광체험, 포용관광)'을 주요 항목으로 언급
- 2016년 : Tourism2020 대만영속관광발전방안(2017-2020), '지속가능한 관광발전' 추진계획 발표
- 2020년 : 2030대만관광정책백서(Taiwan Tourism2030), Tourism2020의 '지속가능한 관광발전 방안'의 연장

(2) 대만 관광국의 관련 정책

1) 최초의 공식 ‘지속가능한 관광(영속관광)’ 계획 수립 :

관광대국행동방안(2015-2018) 수립당시 ‘지속가능한 관광’을 계획에 포함시켰으며, 주요 내용은 녹색관광체험과 배려관광(포용관광)서비스이다.

- 녹색관광 : 녹색교통수단(관광버스, 순환형버스)을 이용을 장려하여 국내외 개별여행객에게 녹색관광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관광산업과 현지 관광자원의 연계를 강화하여 현지의 생산과 소비를 장려하는 공정여행을 실천한다.
- 포용관광 : 휴머니즘에 호소하는 관광서비스 개념으로 무장애여행, 실버여행, 농촌(원주민마을)여행 등을 통해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한다.

2) TOURISM 2020 - 대만영속관광발전방안 (2017~2020년)

‘관광대국행동방안’ 제정 이후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꾸준한 논의를 거쳐, 2017년 TOURISM 2020-대만영속관광발전방안(2017~2020년)을 통해 지속가능한 관광의 후속계획이 발표되었다.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관광지(현지)가 행복한 관광산업을 만든다」, 「다방면의 개발을 통해 관광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관광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다」는 주요목표를 골자로 「다양한 시장 발굴, 국민관광 활성화, 관광산업 패러다임의 전환, 스마트관광개발 및 체험관광 보급」 등 5대 행동계획 강령을 수립하였다. 이 행동강령을 통해 국내여행의 기초를 단단히 다지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여행시장을 개척함에 있어서 대만이 ‘친절, 스마트, 체험(friendly, smart, experience)의 세 가지 키워드로 대표되는 아시아의 중요한 관광지가 되기를 기대하였다.

3) Taiwan Tourism 2030 - 대만 관광정책 백서(~2030년)

2021년 발간한 대만관광정책 백서에서는 ‘관광입국(觀光立國)이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관광주류화(主流化) 이념을 바탕으로 정부 각 부처의 자원을 통합하여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을 시행한다’고 발표하며, 관련법규의 개정과 매력적인 관광지 조성, 테마관광 정비, 관광자원 확충, 산업환경 최적화, 스마트관광 추진 등 6대 정책 추진을 예고하였다.

3. 대만의 ESG관광 사례 (2021년~2022년 위주)

(1) 지역의 ESG관광

1) 화롄시(花蓮市)

- 화롄의 주요 호텔들은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객실에 일회용품과 패트병 생수 공급을 중단할 예정이며, 세면용품과 쇼핑백, 텀블러 등 개인용품을 직접 준비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 즈뤄마을(織羅部落)은 마을의 농산물 홍보를 위해 직접 재배한 밭에 심은 붉은쌀, 자색찰쌀, 좁쌀, 흰쌀, 현미 등으로 개발한 지역 대표상품 ‘미차이후이-쌀로 만든 그림(米彩繪)’을 개발하였다.

2) 지룽시(基隆市)

- 지룽시내에 위치한 허핑다오공원(和平島公園)은 2020년 아시아 유일의 BSI(영국왕립표준협회)「ISO20121이벤트지속가능성 경영시스템」인증을 받은 국가급 관광단지로, 단지 내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를 실천할 뿐만 아니라 목욕소금과 고체샴푸 등으로 기존의 목욕용품을 대체한다. 특히 <섬들의 집島嶼物舍>이라는 섬 테마 기념품샵을 오픈하여 현지 예술가들의 작품과 대만 국내작가들의

ESG상품들을 전시·판매한다. 또한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전문가이드를 양성하는데 힘쓴다.

3) 자이시(嘉義市)

- 자이시는 ‘2021구죽림철신예전(2021構竹林鐵新銳展)’ 개최를 통해 자이시 대나무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대나무가 가지고 있는 구시대적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했다. 성장속도가 빠르고 번식력이 강한 대나무는 4년간의 성장을 거친 뒤 바로 재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발전가능성이 무한한 녹색산업 중의 하나이다. 대만 임무국(林務局, 산림청) 역시 대나무산업의 발전을 위해 ‘신흥대나무산업발전강령계획(新興竹產業發展綱要計畫)’을 발표한 바 있다.

4) 타이난 시

- 타이난신아(새싹)협회(台南新芽協會)는 제5회 아시아태평양사회혁신정상회의(2022)를 개최해 ‘평야쌀밥 코스, 둘레길유기농코스, 수로트레킹코스’의 세 가지 관광코스를 발표하였다.

(2) 여행사들의 ESG관광

1) 웅사여행사(雄獅旅行社)

- 웅사여행사 그룹은 2020년 하반기부터 명일호(明日號)라는 이름의 철도관광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탄소배출 관광버스를 운영하거나 여행 중 이동수단의 탄소배출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업체와 협업하는 등 다방면에서 ESG관광을 실천해왔다. 특히 여행상품에 참여하는 관광객들에게 ESG관광 동영상을 제공해 녹색여행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일정 참여 시 개인텀블러를

소지하도록 독려하는 등 관광객들이 ESG관광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 봉황여행사(鳳凰旅行社)

- 봉황여행사는 무장애 전문여행사로도 유명한데, 무장애여행 외에도 환경보호 실천을 위한 ‘생태여행’에도 힘쓰고 있다. 샤오류치우(小琉球) 섬에서의 쓰레기 줍기 활동을 여행일정에 포함한다든지 전기스쿠터를 이용하는 저탄소여행 상품을 개발하고, 일회용 세면용품을 제공하지 않는 숙박업소들과 협업 하는 등 환경을 고려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한다.
- 특히 2022년 4월, 지룽섬(基隆嶼)을 등반하는 행사 당시 ‘지룽섬 환경 정화 이벤트’를 개최하여 관광객들에게 동부지역 바다의 아름다움을 선사함과 동시에 해양생태 보전에 대한 중요함을 일깨워주었다.

3) 도서견학여행사(島嶼見學旅行社)

- 도서견학여행사는 타이둥 지역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과 지속가능관광을 연계하여 타이둥을 알리는 학습형 관광을 추구한다. 생태관광코스 뿐만 아니라 타이둥(台東)과 뤼다오(綠島), 란위(蘭嶼) 섬 지역의 원주민 전통문화체험, 서핑체험, 현지문화체험 등의 지역관광을 홍보한다. 또한 뤼다오의 환경교육코스에서는 지역 수산물·농산물 바로 알기, 현지 원주민 문화 바로알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보호 및 문화보존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다.

(3) 호텔경영 ESG 사례

1) 르위에탄원핀 온천호텔(日月潭雲品溫泉酒店)

- 2019년 ‘글로벌 지속가능 여행협회(GSTC)’의 호텔부문 GSTC 인증을 획득한 대만 최초의 5성급 호텔로서 2020년부터 친환경을 제창하며 전 호텔 1회용품 미사용, 저탄소 스페셜룸(1회용품 미제공, 침대시트 미교환)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일월담을 활용한 지역관광과 일월담 환경정화 프로그램도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

2) 화롄 한핀호텔 (花蓮翰品酒店)

- 화롄 한핀호텔은 ‘녹색호텔(Green Hotel)’의 개념으로 설계된 호텔로서, 독일의 외벽단열 시스템을 이용해 60~90%의 열에너지 유입을 차단, 에어컨 사용량을 줄이는 효과를 내며, 태양광 패널을 이용한 발전 시스템으로 전력을 공급한다. 또한 수영장 물이나 빗물 재활용 등을 통해 호텔용수의 순환을 도모, 자연스러운 물 절약을 실천한다.

3) 자오시 자오핀호텔 (礁溪兆品酒店)

- 호텔 외관을 층층 계단구조로 설계하여 호텔 주변 공원에 태양광을 흡수, 녹지공간의 자연스러운 광합성을 유도한다. 특히 건축 당시 무독성 환경소재의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환경보호를 실천하였다.

(4) 기타 관광분야 ESG 사례

1) ESG관광을 위한 산학협력

- 경제부 공업국(經濟部工業局) 주관 하에 봉갑대학(逢甲大學), 중화민국 관광기업발전협회(中華民國觀光工廠促進協會), 기업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企業永續發展研究中心),

대만여행업국민여유(관광)발전협회(台灣旅行業國民旅遊發展協會), 여행사연보연의회(旅行社聯保聯誼會), 대만입경여유(관광)협회(台灣入境旅遊協會), 대만관광버스협회(台灣觀巴協會), 창의생활산업협회연맹(創意生活產業協盟) 등 각 기관 대표들은 '관광산업 영속발전 공동선언문 서명식'을 개최하여 '기업의 지속가능' 이념 및 인재양성의 중요성 보급을 위해 뜻을 모았다.

4. ESG관광에 대한 업계, 소비자 및 한계의 관점

(1) 2022 태평양국내여행영속관광 포럼 (2022太平洋論壇)

3일간 진행된 포럼에서는 '관광산업의 트렌드 및 지속가능 관광과 ESG' 라는 주제로 각 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이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포럼 중 대만여행업국민여행발전협회 차이즈지엔(蔡子建) 이사장은 회사의 경영방침에 ESG를 어떻게 결합하여 시장에서 살아남을 것인지 고민할 시기라며, 앞으로 다가올 회사의 미래에 '지속가능 관광' 을 반드시 결합하여 관광산업의 발전에 기여해야할 것이라 말했다.

교통부 관광국 관계자 역시 정부가 나서 업계와 공동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관련 지원제도를 강화하며, 인재양성에도 힘쓸 것이라 밝혔다. 특히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경개방 이후 외래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 현지기반의 지역관광과 다양한 테마코스를 더욱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 대만 소비자들의 ESG관광에 대한 관심도

2021년 아고다(Agoda)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속가능관광 트렌드조사' 에 따르면 대만과 인도가 '지속가능

관광을 가장 실천하(고싶어하)는 나라'에서 한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부킹닷컴 (Booking.com)이 실시한 유사한 조사에서 역시 68%의 대만 응답자는 코로나 이후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여행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으며, 1년 전의 조사결과보다 8%나 상승한 93%이상의 응답자들이 1년 이내에 ESG를 실천하는 숙소에 묵을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최근 2년 간 코로나의 영향으로 해외여행을 할 수 없게 되자 대만 국민들의 국내여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고, 환경보호 또는 친환경에 대한 의식 또한 많이 성장했다. 특히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관광객이 적은 관광지를 선호하거나 원주민마을체험, 농촌체험, 산악트래킹, 섬 여행 등 ‘지속가능한 관광’을 추구하는 관광을 선호하게 되었다.

(3) 대만 ESG관광 트렌드에 대한 학계의 관점

대만의 관광학자들 역시 국제사회의 흐름과 소비자들의 인식전환에 맞춰 관광업계가 다양한 ESG정책으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ESG정책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불가피한 요소로서 코로나19로 인해 그 중요성은 더 강조되어 이제 ESG는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조건이 되었음을 강조한다.

유튜브 채널 CSRone 운영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대만의 ESG관광은 크게 항공, 관광버스 등의 운송수단이 어떻게 탄소배출량을 줄이는지, 대형 체인호텔들이 호텔용수 절약과 식품안전을 어떻게 실천하는지 주목하는 두 가지 형태라고 소개하며, 여행사는 이러한 소비자들의 수요에 따라 ESG관광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세신(世新)대학 관광학과 천자위(陳家瑜) 부교수는 관광산

업이 ESG라는 수요에 직면한 것은 아니라고 해도 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애플이 발표한 <2020 환경진도보고서> 내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애플의 보고서에 따르면 애플이 배출하는 탄소량의 약 75%는 TSMC와 같은 거래처들과의 이동(출장, 물품배송 등)중에 배출되는데, 이들 대부분의 거래처들은 녹색인증 숙소나 탄소세 납부 항공사를 이용한다면서 타 산업에서의 ESG실천이 어떠한 형태로 관광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지 설명했다.

또 다른 교수는 ‘ESG관광’이라고 하는 것의 최종적인 목표는 ‘지속가능한 관광’을 실현하는 것일 텐데 과연 ‘지속(영속)’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 것인지 반문하며, ‘지역개발’이라는 것과 ‘관광’을 결합시키는 과정에서 여행사뿐만 소속 직원들 모두가 공통된 의식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文化)대학교 관광사업학과 대학원의 뢰인청(羅印曄) 교수 역시 지역개발이라는 목적으로 행해졌던 ‘생태관광’은 지속가능한 관광의 한 형태일 뿐,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역의 인재를 교육하고, 마을의 공동경영체를 구축하거나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해치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 ‘지속하는 관광’을 실천하는 것이라 말한다.

금계(金界)여행사 장시이(張詩怡) 부대표는 지속가능한 관광이라 함은 ‘사회, 경제, 그리고 생태’가 균형을 이루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말하면서, 지역관광은 원주민 마을 문화탐험이나 섬에서의 잠수체험처럼 현지의 문화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고, 전통문화 계승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지역 경제에도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5.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목표

「Tourism 2030 대만 관광정책 백서」에 언급한 대만의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 방안은 아래와 같다.

- UNWTO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통해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모델 확보
 - 해양 및 해양 자원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용
 - 육지 생태체계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호, 관리 및 촉진
 - 평화적이고 포용적인 사회를 실현하고 모든 사람에게 사법 절차를 개방하며 모든 계층을 위한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
 - 지속가능한 발전 실행 방법 강화 및 지속가능한 글로벌 동반자 관계 활성화
- 행정원국가영속발전위원회 - 대만영속발전목표
 - 2021-2030 전체 관광수입의 평균 성장률 1.7% 달성
 - 2021-2030 관광산업 취업자 수 성장률 평균 1.7% 달성
 - 2030년 40개의 생태관광코스 개발 완료

6. 맺음말

ESG는 이미 미래의 트렌드이자 투자자와 소비자가 기업을 선택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ESG에 대한 기업의 책임감들은 다른 산업이 변화하는데 매우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순환과정을 통해 ESG는 더 많은 범위로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간 것이다.

관광산업에 있어서도 ESG관광을 추구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그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업계 종사자들 역시 개인의 사회적 책임뿐만 아니라 고객의 수요에 의해서도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포럼이나 세미나 개최, 산학협력 체계 등을 통한 ESG연구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관광업계가 먼저 나서 저탄소배출 계획을 수립하기도 한다. 또한 지역개발, 현지문화교육, 전통문화계승 등의 ESG의 개념을 도입한 여행상품을 꾸준히 개발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함은 물론 관광객이 직접 ‘지속가능한 관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최근 대만의 관광객들은 ESG실천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ESG를 실천하는 관광에 흔쾌히 참여하고 있지만 향후 엔데믹 이후에도 이러한 ‘지속가능한 관광’의 트렌드가 유지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많은 관광업계의 관심과 홍보 그리고 소비자들의 끊임없는 인식 개선과 지지가 필요한 때이다.

※ 참고문헌

- (1) 陸孝立, 『ESG, 企業永續經營的關鍵DNA』, 「勤業眾信通訊2021年8月號」, 2021.
- (2) 陳太齡, 『永續意識崛起 ESG投資成趨勢』, 商業週刊, 2021.
- (3) 王儷華 責任編輯, 『一份ESG高碳排名單, 為何激發鴻海全面改革?』, 「天下雜誌732」
- (4) 王政, 『2022太平洋國旅永續觀光論壇 邀您一起探尋台灣永續觀光的價值』, 「旅奇週刊第694期」, 2022.
- (5) 唐偉展, 『【太平洋觀光論壇 ~ 花蓮(2)】領團考察學習活動 八條路線精彩豐富』, 「TTN旅報1240-1242期」, 2022.
- (6) 唐偉展, 『【ESG永續認證標章 (8)】和平島公園 ISO 20121永續認證國家級景點 旅遊在地化 打造友善旅遊』, 「TTN旅報1236-1239期」, 2022.
- (7) 林芳如, 「嘉義竹風景綠色旅遊, 如何環保減碳永續經營?」, 欣傳媒, 2021.
- (8) 台南新芽協會, 「SDGs永續小旅行 三條路線再次認識大台南」, 地方亮點, 2022.
- (9) 林秀峰, 「ESG永續旅遊該如何落實? 雄獅旅遊董事總經理黃信川:『減碳移動, 世界共享』」, 欣傳媒, 2021.
- (10) 黃淑惠, 「鳳凰旅遊實踐企業社會責任 今年再登基隆嶼淨灘」, 聯合新聞網, 2022.
- (11) 島嶼見學旅行社 官方網站.
- (12) 雲品國際 官方網站.
- (13) 周彥均, 「【讓旅行變得更有意義】精選3家實踐「ESG」永續環保的質感住宿: 日月潭雲品溫泉酒店、花蓮翰品酒店、礁溪兆品酒店」, 生活報橘, 2022.

- (14) 王政,
『觀光工廠促進協會攜手各產業舉辦觀光產業永續發展共同宣言簽署儀式』,「旅奇週刊 第694期」, 2022.
- (15) ttn旅報,
『【2022太平洋論壇(1)】2022太平洋國旅永續觀光論壇暨產業媒合會
業界唯一探討觀光產業趨勢、永續旅遊與ESG議題』,
「TTN旅報1240-1242期」, 2022.
- (16) 唐偉展,
『【2022太平洋論壇(2)】永續觀光論壇講座、洽談商機』,
「TTN旅報1240-1242期」, 2022.
- (17) Agoda,
「Agoda永續旅遊趨勢調查顯示人們最關注的旅遊影響層面,以及可以讓旅遊永續的措施」, 2021.
- (18) Booking.com,
「旅遊的轉變時刻! Booking.com發布「2021年永續旅遊報告」」, 2021.
- (19) 台灣觀光地方創生協會,
「【永續觀光】疫情之下,全球觀光旅遊產業的轉變時刻(上):台灣需要一套新的觀光凝視腳本」,公益交流站, 2021.
- (20) 魏苑玲,『ESG對企業而言不是選擇 是生存的必要條件』,
「TTN旅報1236-1239期」, 2022.
- (21) 唐偉展,『陳家瑜:未來去歐洲旅遊 可能都要繳碳稅』,
「TTN旅報1236-1239期」, 2022.
- (22) 唐偉展,『羅印呈:消費者對永續旅遊觀念已開始萌芽與重視』,「TTN旅報1236-1239期」, 2022.
- (23) 唐偉展,『滿足合作商期待 引領市場潮流』,
「TTN旅報1236-1239期」, 2022.
- (24) 張錫聰,「Taiwan Tourism 2030臺灣觀光政策白皮書」,交通部觀光局, 2020, p. 15.